

##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김지원(Ji Won Kim)<sup>1)</sup>

하은혜(Eun Hye Ha)<sup>2)</sup>

조유진(You Jin Cho)<sup>3)</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Subjects were 749 7th through 9th grade students attending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Major findings were that (1) boys' and girls' behavioral inhibition was an important factor predicting social anxiety; and (2)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played the role of moderating variables on the influence of behavioral inhibition of boys' and girls' social anxiety. In the boys' group, perceived intrus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the girls' group, perceived warmth and perceived granting of autonomy acted as moderating variables on social anxiety.

**Key Words** : 행동억제기질(behavioral inhibition), 지각된 부모양육행동(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사회불안(social anxiety).

<sup>1)</sup> 강북구 청소년지원센터 놀이치료사

<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sup>3)</sup> 인덕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 Jin C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duk University, Seoul 139-749, Korea  
E-mail : cyj@induk.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불안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수치스럽고 당황한 느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핵심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에서는 극단적인 사회불안을 보인 경우를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이라고 진단한다. 사회공포증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일생동안 그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는 만성적 경과를 밟게 되는 것(Kessler, Foster, Saunders, & Stang, 1995; Weiller, Bisslerbe, Boye, Lepine, & Lecrubier, 1996)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불안이 높거나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서적으로 과민한 경향을 보이며 감정부전증, 고독감 등이 높고(Beidel, Tuner, & Morris, 1999),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Alloy, Kelly, Mineka, & Clements, 1990). 또한 등교 거부, 우울증, 신체화장애, 약물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Essau, Conradt, & Peterman, 1999), 위의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이 정신건강 뿐 아니라 적응에 매우 유해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회공포증의 발현 혹은 유지 및 악화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질적 요인(Schwartz, Snidman, & Kagan, 1999), 부모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환경 요인(Rapee, 1997; 김무경·오윤희·오강섭, 2005), 외상경험(Stemberger, Turner, & Morris, 1999; 양윤란, 오경자, 2003), 또래관계(Beidel et al., 1999; 강민지·김광웅, 2008)와

인지적 요인(Barlow, 2002; 정승아, 2005; 조용래, 1999)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 기여하는 주요 기질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상황, 도전적 상황, 낮은 대상이나 사람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양식이며(Kagan, 1989; Park et al., 1997), 아동·청소년기의 여러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적 취약요인(Mick & Telch, 1998)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회고적 자기보고식 행동억제척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고했던 고등학생들은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에 비해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그 외 몇몇 연구들(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 Coll, 1984; Neal Edelman & Glachan, 2002)에서도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아동이 사회불안의 위험성이 높음이 보고되었다.

한편 행동억제기질이 높다고 해서 모두 사회불안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즉,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행동억제성향을 보인 아동들 중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불안을 보이지 않았고(Shwartz et al, 1999), 또한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련성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된다는 결과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됨으로써(오경자·양윤란, 2003), 행동억제기질만으로 사회불안의 발생이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사실 행동억제기질은 연령이 증가해도 일관성 있게 안정적인 특성(stability)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Rothbart, 1986), 보다 최근에는 행동억제를 유전적 기질로 타고나더라도 부모의 양육행동, 보육의 질, 교육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도현심 · 박성연 · 윤종희 · 정옥분 · Rubin, 2003). 일부 학자들은 행동억제 성향이 극단으로 높거나 혹은 낮은 경우에만 안정성이 나타나며, 행동억제 성향이 중간 정도에 속하는 아동들은 행동억제 성향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여 행동억제의 비연속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Engfer, 1993; Park, Belsky, Putman, & Cmic, 1997). 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사회불안의 발현에 행동억제기질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교육이나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기질적 취약성이 점차 극복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주장이나, 공식적인 학교경험이 이전에 수줍었던 아동들에게 낯선 상황을 덜 새롭고, 덜 위협적으로 느끼게끔 도와줘, 이들의 사회적 위축 행동에 대해 또래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경험이 중재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Pfeifer, Goldsmith, Davidon과 Rickman(2002)의 주장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상기한 연구들은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이라는 두 변인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매듭지어져 있기보다는 어떠한 제 3의 요인에 의해 매개되거나 중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되어 작용하는가? 오경자와 양윤란(2003)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가 행동억제기질과 외상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고, 박성은과 박성연(2001) 또한 아동의 행동억제성향 발달에서 부모양육행동을 일차적 환경변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등 행동억제기질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개입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양육행동이 행동억제를 조장하고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견해는 학

자들마다 다르게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시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의 주요 예측변인이라는 전제하에 부모양육행동이 행동억제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구체적 역할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행동억제기질을 예측변인으로, 사회불안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이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양육행동 중 어떠한 양육행동이 행동억제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을 낮추는지 혹은 높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과 관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신혜린 · 이기학, 2008; 양윤란 등, 2003; Turk et al., 1998; Wittchen, Stein, & Kessler, 1999)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점, 사회불안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탐색하는 작업이 성별에 따라 병 원인을 밝히고 더 나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한 Dickstein(2000)의 주장과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자녀의 성별, 자녀의 행동억제기질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김무경 등(2005)의 연구에 근거해 남 · 여 각각의 청소년 집단에서 행동억제기질, 양육행동, 사회불안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1. 남자 청소년의 경우,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여자 청소년의 경우, 행동억제기질이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2-1 남자 청소년의 경우,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2-2 여자 청소년의 경우,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1, 2, 3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기지역 3개 중학교와 서울지역 1개 중학교에서 배부된 설문지 800부 중 총 778부를 회수하였으며,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749부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2. 측정도구

#### 1)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znick, Hegeman, Kaufman, Woods와 Jacobs(1992)의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한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RSRI는 원래 총 30개 문항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1-3학년)기준으로 행동억제기질에 대한 해당여부를 응답하도록 구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74)\*

변인	구 분	N(%)
성별	남	446(59.5)
	여	303(40.5)
학년	중학교 1학년	197(26.3)
	중학교 2학년	263(35.1)
	중학교 3학년	289(38.4)
부학력	대학원 이상	83(11.3)
	대학 졸업	390(52.9)
	전문대 졸업	17( 2.3)
	고등학교 졸업	218(29.9)
	중학교 졸업 이하	29( 3.9)
모학력	대학원 이상	51( 6.9)
	대학 졸업	302(41.0)
	전문대 졸업	19( 2.6)
	고등학교 졸업	341(46.2)
	중학교 졸업 이하	24( 3.3)
경제 수준	매우 풍족한 편이다	27( 3.6)
	풍족한 편이다	150(20.1)
	보통이다	506(67.7)
	생활이 어려운 편이다	53( 7.1)
	생활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11( 1.5)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전체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성된 척도로서, Reznick 등(199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결과, 2개의 요인구조가 보고된 바 있다. 첫 번째는 학교 및 그 밖의 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 및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반면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 RSRI의 요인구조는 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동억제가 하나의 단일구성개념으로 가정된다는 것에 따라 5개 하위요인구조에 포함된 문항 총 30개의 점수를 합하여 이를 행동억제기질로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응답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기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78로 나타났다.

## 2)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Parker (1979)의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기초로 하였고,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예정 11문항, 과잉간섭 7문항, 자율성존중 7문항의 총 25개 문항, 3개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잉간섭 요인의 신뢰도가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한 총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현재 양육행동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바를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된 양육행동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예정 .92, 과잉간섭 .83, 자율성 존중 .89로 나타났다.

## 3)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오경자와 양윤란(2002)은 사회불안을 대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인 대인불안과 특정 수행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인 수행불안으로 구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근거하여 사회불안 척도를 구성하였다. 대인불안의 측정은 Lagreca (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 SAS-A)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에 대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불안에 대한 측정은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수행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 SPAI-C)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수행상황을 기술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총합하여 사회불안의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총 27개의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심함을 의미하여,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95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4일간 실시되었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해당학교 관계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협조를 구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한 후 회수하거나,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학급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748)

	1	2	3	4	5
1. 행동억제기질	1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2. 애정	-.17***	1			
3. 과잉간섭	.12**	-.16***	1		
4. 자율성 존중	-.14***	.84***	-.16***	1	
5. 사회불안	.58***	-.16***	.19***	-.11**	1
<i>M(SD)</i>	48.89 (10.58)	65.85 (14.04)	18.32 (6.38)	39.62 (9.91)	53.39 (19.47)
<i>M</i> 문항수	1.63	2.99	1.83	2.83	1.98

\*\* $p < .01$  \*\*\* $p < .001$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값이 유의한 경우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주요변인인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사회불안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표 2>의 평균과 문항평점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행동억제기질은 ‘전혀 아니다(1점)’와 ‘약간 그렇다(2점)’ 사이의 평균분포를 보였고,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애정은 ‘자주 그렇다(3점)’, 과잉간섭은 ‘가끔 그렇다(2점)’, 자율성 존중은 ‘자주 그렇다(3점)’에 근접한 평균분포를 보였다. 사회불안의 경우에는 ‘약간 그렇다(2점)’에 가까운 평균분포를 보였다.

<표 2>를 근거로 준거변인인 사회불안과 행동

억제기질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의 상호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데 즉, 사회불안은 행동억제기질과는 정적 상관( $r = .58, p < .001$ )을, 중재변인으로 가정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애정( $r = -.16, p < .001$ )과 자율성 존중( $r = -.11, p < .01$ )과는 부적 상관을, 과잉간섭( $r = .19, p < .001$ )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 남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남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기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행동억제기질을 예측변인으로 두고, 사회불안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청소년의 경우,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beta = .58, t = 14.84, p < .001$ ), 그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F = 220.17, p < .001$ ).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3> 남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adj. $R^2$	$F$
사회불안	행동억제기질	.58	14.84***	.33	.33	220.17***

\*\*\* $p < .001$

2)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여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기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행동억제기질을 예측변인으로 두고, 사회불안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beta = .59, t = 12.54, p < .001$ ), 그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F = 157.31, p < .001$ ).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더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표 3>과 <표 4>의 결과를 통해 남·여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주요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통해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영향

력을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행동억제기질과 각각의 양육행동을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중재효과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중재효과가 나타난 경우, 중재변인의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동억제기질 점수와 양육행동 각 하위변인의 상위 25%, 하위 25%의 점수를 기준으로 행동억제기질 상·하 집단과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을 높게 지각한 집단과 낮게 지각한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남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남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adj. $R^2$	$F$
사회불안	행동억제기질	.59	12.54***	.34	.34	157.3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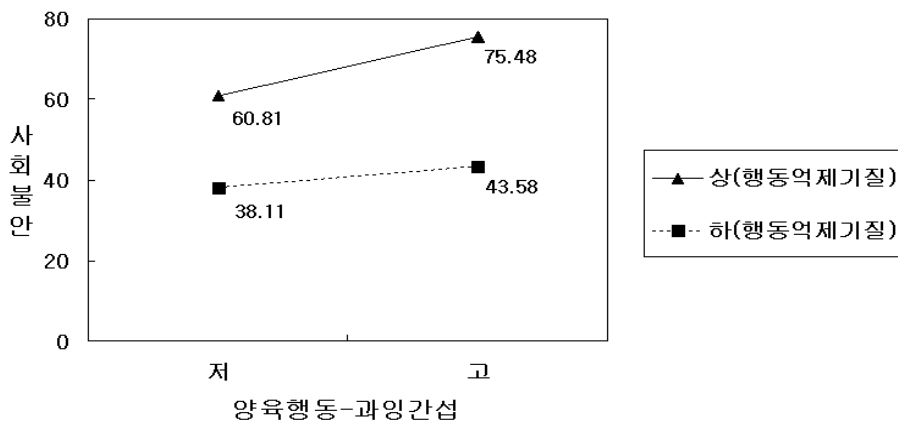
<표 5> 남자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증재효과

준거변인	단계	예측변인	$\beta$	$R^2$	F	$\Delta R^2$
사회불안	1	행동억제기질(A)	.57***	.334	111.36***	
		애정(B)	-.06			
	2	행동억제기질(A)	.57***	.335	74.28***	.001
		애정(B)	-.05			
		A × B	-.02			
	1	행동억제기질(A)	.56***	.342	115.32***	
		과잉간섭(B)	.11**			
		A × B	.11**			
	2	행동억제기질(A)	.56***	.354	80.60***	.012
		과잉간섭(B)	.10**			
		A × B	.11**			
	1	행동억제기질(A)	.57***	.332	110.18***	
자율성존중(B)		-.03				
2	행동억제기질(A)	.57***	.333	73.49**	.001	
	자율성존중(B)	-.03				
	A × B	-.02				

\*\* $p < .01$  \*\*\* $p < .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애정과 자율성 존중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 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과잉간섭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 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1, p < .01$ ). 즉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하여 지각된 과잉간섭은 증재효과를 보이며, 이는 과잉간섭의 수준에 따라 행동억제기질로 인한 사회불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 나타났다( $\beta = .11, p < .01$ ). 즉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하여 지각된 과잉간섭은 증재효과를 보이며, 이는 과잉간섭의 수준에 따라 행동억제기질로 인한 사회불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남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기질과 양육행동-과잉간섭의 상호작용효과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효과가 나타난 변인의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행동억제기질의 낮은 집단의 경우, 지각된 과잉간섭이 낮고 높음에 따라 사회불안 수준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지각된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경우에 있어 사회불안에 대한 지각된 과잉간섭의 중재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2)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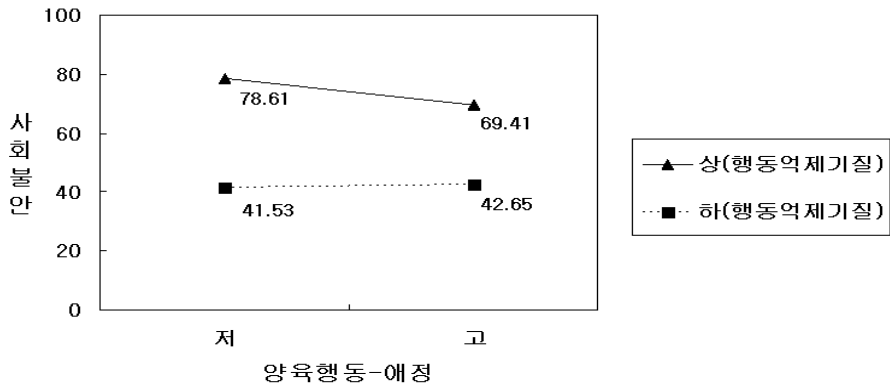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각 하위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애정( $\beta=-.14, p<.01$ )과 자율성존중( $\beta=-.17, p<.01$ )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여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중 지각된 애정과 지각된 자율성존중이 중재효과를 보이며, 이는 애정과 자율성 존중의 수준에 따라 행동억제기질로 인한 사회불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자 청소년에 있어서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과잉간섭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과잉간섭은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효과가 나타난 변인

<표 6> 여자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준거변인	단계	예측변인	$\beta$	$R^2$	F	$\Delta R^2$
사회불안	1	행동억제기질(A) 애정(B)	.57*** -.07	.349	80.22***	
	2	행동억제기질(A) 애정(B) A × B	.57*** -.06 -.14**	.369	58.24***	.020
	1	행동억제기질(A) 과잉간섭(B)	.57*** .15**	.362	85.01***	
	2	행동억제기질(A) 과잉간섭(B) A × B	.56*** .15** .08	.369	57.98***	.007
	1	행동억제기질(A) 자율성존중(B)	.57*** -.03	.343	77.93***	
	2	행동억제기질(A) 자율성존중(B) A × B	.57*** -.02 -.17***	.372	58.82**	.029

\*\* $p<.01$  \*\*\* $p<.001$



<그림 2> 여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기질과 양육행동-애정의 상호작용효과

의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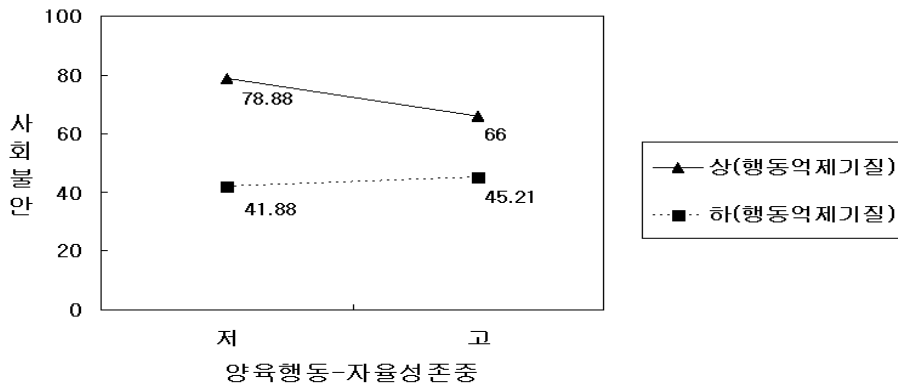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듯이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지각된 애정이 낮고 높음에 따라 사회불안 수준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지각된 애정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경우에 있어 사회불안에 대한 지각된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재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림 3>을 살펴보면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지각된 자율성존중이 낮고

높음에 따라 사회불안 수준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지각된 자율성존중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경우에 있어 사회불안에 대한 지각된 자율성존중의 중재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기질의 영향과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



<그림 3> 여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기질과 양육행동-자율성존중의 상호작용효과

재효과를 검증하여,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부모양육행동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또한,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에 대해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과잉간섭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애정과 자율성존중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억제를 사회불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심리적 변인으로 제시한 Degnan과 Fox(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서 즉, 본 연구에서도 행동억제는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세 변인보다 사회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억제기질은 남·여 청소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대한 기질적 취약성 요인임을 밝힌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Beiderman et al., 2001; Wittchen et al., 1999; 양윤란·오경자, 2003; 양주경, 2007)을 지지함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위협요인으로서 행동억제기질의 영향력을 재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남·여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중재하는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해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하

위요인인 과잉간섭이 중재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남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높으면서 과잉간섭 또한 높게 지각하는 경우, 사회불안은 더욱 높아지는 상승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남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이 높으나 부모의 과잉간섭이 낮다고 지각할 때는 사회불안이 완화되는 감소효과를 보여줌으로써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의 구체적 중재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유계민과 안경미(2008)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없는 간섭이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행동 특징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오경자·문경주, 2002)에서 남학생 집단에서 과잉간섭 요인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행동억제기질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해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애정과 자율성존중이 중재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애정과 자율성존중에 대해 낮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상승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행동억제기질의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애정과 자율성존중에 대해 높다고 지각한다면 사회불안의 수준을 더 낮추는 감소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이 사회불안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한 서경현 등(2008)의 연구와 성인 사회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표현이 적었다고 회상하였다는 보고(Arrindell et al., 1989)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의 애정 요인이 초·중학교 여학생 집단의 불안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는 문경주 등(200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가 남·여 청소년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을 지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 문경주 등(2002)의 논의나,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각각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기한 바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의 의의는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즉,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양육행동의 보호적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남·여 청소년 집단에 따라 다르게 개입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 방안과 이를 토대로 사회불안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의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중학교 1, 2, 3학년を対象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과 문화 환경 등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과 배경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일반화의 외적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행동억제기질이나 사회불안점수가 중간점수보

다 낮은 경향, 즉,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의 유발요인이라는 전제하에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사회불안의 예방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치료적 관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인 보고와 판단에 의존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결과 도출을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반응태도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행동억제기질의 경우, 과거를 회상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경우, 타인이 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보고나 면접, 관찰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기질 특성을 하나의 변인으로 보아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행동억제기질은 각 하위변인마다의 고유한 특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민지·김광웅(2008).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 : 또래관계의 중재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1), 87-101.

- 김무경 · 오윤희 · 오강섭(2005).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3), 599-614.
- 문경주 ·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1), 29-43.
- 문혜신 · 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1(2), 429-444.
- 박성은 · 박성연 (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 여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29-47.
- 서경현 · 유제민 · 안경미(2008). 초등학교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7(9), 675-693.
- 신혜린 · 이기학(2008).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 사회불안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7(1), 139-159.
- 양주경(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 행동억제기질, 가족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 양윤란(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II :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3), 557-576.
- 정승아(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기제 :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 제시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4), 887-901.
- 정옥분 · Rubin ·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2003).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2-4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 8개국 비교문화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29-38.
- 조용래(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1), 17-36.
- Alloy, L. B., Kelly, K. A. Mineka, S., & Clements, C. M. (1990).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 A helplessness-hopelessness perspective. In J. D. Maser, C. Cloninger, & R. Robert, *Comorbidity of mood anxiety disorders(pp.499-543)*.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rd ed.)*. Washington, DC : Author.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m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Barlow, D. H. (2002). *Anxiety and its disorders :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2n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9).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6), 643-650.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 Multiple levelsof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729-746.
- Dickstein, L. J. (2000). Gender differnces in mood and anxiety disorders : From bench to bedside :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186-1187.
- Engfer, A. (1993). Antecedents and co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H. Rubin & J. B. Asendro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49-80)*. Hillsdale, NJ : Erlbaum.
- Essau, C., Conardt, J., & Peterma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831-843.
- Hayward, C., Killen, J., Kraemer, H., & Taylor, C.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721-726.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
- Kagan, J., Reznick,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 Coll, C.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essler R. C., Foster, C. L., Saunders, W. B., & Stang, P. E. (1995). Social consequences of psychiatric disorders I :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613-619.
- Lagrecia, A. M. (1998).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 Scal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iami.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Neal, J. A., Edelmann, R. J., & Glachan, M. (2002). Behavio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for Clinical Psychology*, 41(4), 361-374.
- Park, S., Belsky, J. Putman,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 years inhibition :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feifer, M., Goldsmith H. H., Davidson, R., J., & Rickman, M. (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5), 1474-1485.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child 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1), 47-67.
- Rothbart, M. K. (1988).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241-1250.
- Schwartz, C.,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Stemberger, R. T., Turner, S. M., Beidel, D. C., & Calhoun, K. S. (1995). Social Phobia : An analysis of possible development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526-531.
- Turk, C. L., Heimberg, R. G., Orsillo, S. M., Holt, C. S., Gitow, A., Street. L. L., Schneier, F. R., & Liebowitz, M. R. (1998).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3), 209-223.
- Weiller, E., Bisslerbe, J. C., Boyer, P., Lepine, J. P., & Lecrubier, Y. (1996). Social phobia in general health care : An unrecognized untreated disabling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169-174.
- Wittchen, H. U., Stein, M. B., & Kessler, R. 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iatry Scandinavia*, 96, 58-63.

2009년 8월 30일 투고, 2009년 10월 29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